

광주지역 ‘코리아 세일 페스타’ 매출 분석해보니

저가상품 판매 대형마트·쇼핑몰만 웃었다

중국 관광객 특수 못누려 백화점 매출 역신장

재래시장은 행사기간 가을비 내려 아예 효과 못봐

정부 주관의 쇼핑관광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9월 29일~10월 31일) 기간,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특수를 누리지 못하는 광주지역은 되레 매출이 줄어들기도 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줄고,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직접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탓이다.

7일 광주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발표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매출 자료에 따르면 매장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의 신장률을 보

였다. 중국 관광객이 몰려들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를 본 서울 등지에 비해 초라한 실적이다.

A백화점의 경우 이 기간 매출 실적은 -2% 역신장 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군별로는 혼수 특수에 따른 가전을 중심으로 한 가정 상품군이 23% 큰 폭의 신장세를 보였으며, 해외명품 19%, 식품 6%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백화점 여성의류 상품군은 -5.9%, 남성의류 -9%, 영패션 -4% 역신장을 보여 전체 실적도 역신장했다. 혼수 특수를 빼면 사실상 역신장 폭이 더욱

큰 셈이다.

B백화점도 이 기간 0.3% 소폭 신장하는데 그쳤다. 이 백화점의 전국 매장의 전체 신장률 14.2%에 비하면 전혀 코리아 세일 페스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수 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명품 1%, 화장품 0.7%, 남성 1.2%, 아웃도어 -10%, 영패션 -2%, 리빙 16%, 식품14%, 마트 5% 등 전체적으로 장사가 되지 않았다.

이 백화점 관계자는 “올해는 코리아 세일 기간 동안 역신장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선방한 것”이라면서 “서울 점포 대비해 광주 매장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중국 관광객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대형마트의 사정은 조금 나아

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이 기간 지난해보다 3.4%의 성장률을 보였다. 부문별로 보면 신선 21.8%, 가공 6.7%, 가전 13.2% 신장했다.

특히 이마트몰의 경우 신선 28.2%, 가공 34.7%, 가전 16.8%의 신장률을 보이며 전체신장률도 31.7%에 달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광주지역 효과가 백화점보다는 저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형마트에 집중됐고, 이마저도 인터넷쇼핑 의존도가 높았던 셈이다.

광주지역 재래시장의 사정도 비슷하다. 행사기간 가을비에 아예 찾는 소비자들도 줄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97.58 (+15.56)

↓ 금리 (국고채 3년) 1.43% (-0.01)

↑ 코스닥 622.17 (+11.35)

↓ 환율 (USD) 1143.10원 (-0.30)



바짝 다가선 2000선 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56포인트(0.79%)오른 1,997.58로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광림은 지난 3일 베트남 피코사와 현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체결을 완료했다. 왼쪽부터 광림 양선길 회장, 받기호 사외이사, 이인우 대표, 피코사의 응웬 투안 안 사장,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부령 취 비엔 차관, 공안부 기술총국 응웬 반 두 부국장. <광림 제공>

광림 특장차 동남아 시장 본격 진출

베트남 피코社와 합작법인 설립…10개국 진출 교두보 마련

크레인·특장차 제조업체인 광림이 지난 3일 베트남의 피코서비스 앤 트레이딩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 조인트 스타 컴퍼니(이하 피코)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베트남 현지 특장차 판매와 더불어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서다. 양사의 합작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준비해왔다. 합작법인의 사명은 ‘NFK JSC(National Fico & Kangleim Joint Stock Company)’로 확정됐다.

파트너인 피코는 베트남의 국영기업인 비나코민(VINACOMIN, 베트남 천연자원개발공사)이 직접 출자해 출범한 기업이다.

건설업, 건설자재 제조·판매 및 유통업,

부동산 개발업 등에 투자하는 베트남의 대표적인 전문투자회사다.

광림측은 합작법인 설립에 따라 건설 특장차 시장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지 사업파트너인 피코의 유통망과 유통노하우, 광범위한 인맥 등을 무기 삼아 신설합작법인인 NFK JSC를 통해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광림 관계자는 “이번 합작회사설립으로 인한 베트남 진출은 일차적으로 광림의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세 대출 집주인 동의 받기 쉬워진다

표준안내서 도입 “질권설정 등 동의해도 소유권 영향 없어”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가 마련됐다. 전세대출 관련 제반절차와 법률관계 설명이 충분히 담겨 집주인의 오해를 줄이고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전국은행연합회가 공동으로 만든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가 이달 중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지

만,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면 일부 임대인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꺼리면서 협조를 거부해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잦았다.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변화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확인해 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표준안내서는 이와 관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광주 기초산업 선도 ‘뿌리산업진흥회’ 출범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의 경쟁력을 이끌 뿌리산업진흥회가 첫 발을 내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김영환)은 7일 뿌리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사단법인 광주전남뿌리산업진흥회가 최근 설립허가를 받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

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초산업이다.

광주전남 뿌리산업진흥회(회장 이명숙)에는 (주)대경제이엠과 왕성테크, (주)현대금속, (주)두광금속 등 2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진흥회는 뿌리산업의 국내외 홍보마케팅과 전시, 산학협동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